

## G.F.J: 제니스 설립 160 주년을 기념하여 아이코닉한 무브먼트에 다시금 주목하는 새로운 컬렉션

1865년 제니스 설립 당시 조르주 파브르-자코(Georges Favre-Jacot)의 목표는 현존하는 시계 중 가장 우수하고 정밀하며 또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철학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의미하는 제니스라는 이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립 160 주년을 맞이한 제니스는 특별한 해와 더불어 워치메이킹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지향해 온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독보적인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클래식한 타임피스를 선보입니다. 조르주 파브르-자코의 이니셜을 본뜬 G.F.J.는 유려하면서도 슬림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천문대 크로노미터 대회에 가장 화려한 수상 경력을 쌓았던 전설적인 무브먼트, 칼리버 135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 크로노미터를 빛낸 제니스의 전설적인 칼리버 135

수십 년 전만 해도 천문대 테스트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대는 크로노미터 분야에서 중요했지만, 시간 측정 대회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명성을 지닌 장소로 전문 워치메이커가 달성할 수 있는 탁월한 수준의 정밀도를 직접 관측하고 보증하는 곳이었습니다. 천문대를 통해 쌓을 수 있는 명성을 깨달은 워치메이킹 브랜드들은 천문대 테스트를 위한 특별한 무브먼트를 선보였습니다. 제니스는 일찍이 1897년부터 테스트에 참여했으며,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무브먼트는 여러 해에 걸쳐 워치메이킹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2,333개의 크로노미터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설적인 칼리버 135는 다른 모든 무브먼트를 능가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니스의 기술 책임자 찰스 지글러(Charles Ziegler)의 요청에 따라 에프렘 조빈(Ephrem Jobin)이 제작한 이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는 뇌샤텔, 제네바, 큐 테딩턴, 브장송 천문대에서 열리는 크로노미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135라는 이름은 직경 13리뉴(뇌샤텔 천문대 테스트의 손목시계 부문에서 허용된 최대 사이즈인 30mm에 해당)와 두께 5mm로 이루어진 무브먼트의 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칼리버 135는 1949년부터 1962년까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버전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상업용 버전(135)이고, 다른 버전은 천문대 크로노미터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작된 “O” 버전(135-O)입니다. 칼리버 135-O는 235개의 크로노미터 수상 경력을 달성하며 워치메이킹 역사에 최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니스의 명성 높은 “*크로노미터 장인*”으로 손꼽히는 찰스 플렉(Charles Fleck)과 르네 기각스(René Gygax)의 손길로 조정된 이 무브먼트는 뇌샤텔 천문대의 손목시계 부문에서 1950년부터 1954년까지 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칼리버 135-O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2022년, 카리 보틸라이넨(Kari Voutilainen), 그리고 필립스와 백스 앤 루소 협업(Phillips in Association with Bacs & Russo)과의 탁월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마스터 워치메이커 카리 보틸라이넨은 "연속 우승"을 거두었던 1950년부터 1954년에 생산된 10개의 빈티지 무브먼트를 복원하고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안목 있는 수집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아이콘은 오랜 세월 그 가치를 보존하며, 이처럼 풍부한 유산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이제, 제니스가 칼리버 135을 21세기에 걸맞게 재해석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무브먼트는 이전과 동일한 크기, 외관, 구조로 완성되며, 정확성과 안정성 모두를 개선하는 오버사이즈 밸런스 휠을 장착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에는 오프셋 휠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무브먼트는 과거의 칼리버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 솔루션과 소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현대적인 구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1950년대 버전에서는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했지만, 새로운 칼리버의 배럴은 이제 72시간 동안 동력을 제공하고, 톱니의 구조를 최적화해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기어 트레인을 구동합니다. 2.5Hz의 진동수로 작동하는 밸런스 휠은 조정 스크류와 브레게 오버코일이 돋보입니다. 135-O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두 개의 화살표 모양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면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며,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이 추가되어 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스프링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을 장착한 주얼 세팅을 더했으며, 하루 오차가 +/-2초 이내로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무브먼트는 COSC로부터 정확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칼리버 135를 장식한 정교하면서도 차별한 디테일은 탁월함을 추구해 온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각각의 부품은 정교한 마감 기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브릿지에 차별화된 매력을 더하는 "브릭" 기요세 기법은 레드 및 화이트 컬러로 페인팅한 벽돌을 사용해 조르주 파브르-자코의 이니셜인 G.F.J.를 위풍당당하게 표현한 제니스 매뉴팩처의 독특한 외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배럴에는 원형 새틴 마감 기법이 돋보이며, 크라운 휠은 블랙 폴리싱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커다란 사이즈의 주얼로 더욱 세련된 매력을 더했습니다.

###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완벽함이 느껴지는 G.F.J.**

설립 이후 160년이 지난 지금도, 제니스의 워치메이커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매뉴팩처의 철학에 따라 탁월한 시계를 제작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유산을 기념하는 의미로 아주 작은 디테일도 완벽하게 구현하는 제니스의 정수를 담은 타임피스가 태어났습니다. 칼리버 135가 활약했던 시대를 충실히 반영해 완성된 새로운 G.F.J. 시계는

빈티지의 우아한 품격과 모던한 디테일을 완벽히 결합해 1950 년대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슬림하고 우아한 39mm 사이즈의 플래티넘 라운드 케이스는 계단식 베젤과 곡선을 이루는 계단식 러그가 특징입니다. 얇은 옆면과 조각적인 라인은 표면에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를 번갈아 적용하는 탁월한 마감 기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노치드 크라운에는 G.F.J. 이니셜을 장식하였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 박스 아래에 자리 잡은 블루 컬러의 다이얼에도 G.F.J. 디테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별 모양 로고와 더불어 제니스와 하늘의 유대 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정확성을 추구하는 자세를 상징하는 제니스의 시그니처 컬러를 품은 다이얼은 3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매혹적인 깊이감을 선사하며, 섬세하게 제작된 디테일로 더욱 세련된 감각을 연출합니다.

“브릭” 기묘세 패턴이 돋보이는 외부 링에는 각면 처리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워 마커와 화이트 골드 비즈 40 개를 수작업으로 장식해 차분한 스타일로 완성된 미닛 트랙이 자리합니다. 중앙 부분에 사용된 딥 블루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는 골드 컬러의 파이라이트 디테일을 지니고 있어 자연스럽게 별이 빛나는 하늘을 연상시키며, 자연스러운 텍스처로 다이얼마다 독특한 매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를 표시하는 6 시 방향의 오버사이즈 서브 다이얼은 마더 오브 펄 소재로 이루어졌고, 시간, 분, 초는 얇은 배턴형 화이트 골드 핸드로 표시됩니다.

제니스 G.F.J.는 다크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블랙 카프스킨 가죽 스트랩, 블루 “사피아노” 카프스킨 가죽 스트랩까지 서로 다른 3 가지 스트랩과 함께 착용할 수 있으며, 플래티넘 핀 버클에는 G.F.J 이니셜과 브릭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요청 시 중앙 링크에 브릭 패턴이 엠보싱 처리된 7 줄 플래티넘 브레이슬릿을 매치할 수 있습니다.

*"워치메이킹 역사상 칼리버 135 에 필적할 만큼 탁월한 수준의 크로노미터를 구현하여 인정을 받은 무브먼트는 거의 없습니다. 칼리버 135 는 기술적인 성과를 뛰어넘어 정확성을 보여주는 진정한 아이콘으로서 활약했습니다. 제니스는 올해 설립 160 주년을 맞이하여 칼리버 135 에 다시금 주목하며 특별한 유산을 기념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수집가들과 이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G.F.J.를 통해 전설적인 무브먼트를 재해석하면서, 단순히 과거에 대한 헌정이 아니라 제니스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칼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날에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모던한 해석을 선보였다는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니스 시계 CEO, 베누아 드 클레르크(Benoît de Clerck)

16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G.F.J는 제니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를 비롯한 전 세계 공식 매장에서만 사전 주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제니스 시계 CEO 로망 마리아타(Romain Marietta)와의 3 가지 Q&A

- 2022 년에 카리 보틸라이넨, 그리고 필립스와 함께 선보인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에 이어 제니스에서 다시금 전설적인 칼리버를 재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립 160 주년을 기념하고 매뉴팩처의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전설적인 칼리버 135 를 다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카리 보틸라이넨과 필립스가 참여하여 함께 개발한 2022 년의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은 수집가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다시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칼리버가 제니스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열정을 바탕으로 상징적인 무브먼트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단순히 과거에 대한 헌정이 아니라 제니스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칼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날에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모던한 해석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 새로운 칼리버에서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칼리버는 오리지널 버전의 감성이나 특징은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현대적인 기대치에 맞추어 새로운 구조로 섬세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미세하지만 의미 깊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본질적으로 훼손되는 부분 없이 신뢰성, 정확성,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무브먼트는 역사적인 뿌리라는 매력과 현대적인 발전을 결합하여 오늘날의 안목 있는 수집가들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칼리버로 활약합니다.*

- G.F.J. 시계 디자인을 위한 주요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오리지널 버전을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을 연출하는 적절한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1950 년대의 깔끔한 라인, 균형 잡힌 비율, 절제된 세련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조화로운 케이스 디자인부터 아름답고 정교한 다이얼과 무브먼트에 이르는 모든 디테일은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르주 파브르-자코의 비전과 유산을 기념함과 동시에 빈티지 애호가와 현대의 수집가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한 해석이 돋보이는 시계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뉴팩처의 아이코닉한 외관, 그리고 제니스라는 제국을 구축한 벽돌 하나하나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기를 꿈꿨던 조르주 파브르-자코의 야심을 기념하는 기묘세 다이얼은 독특한 브릭 패턴으로 이루어져 선구적인 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제니스 시계 헤리티지 부서 책임자 로렌스 보덴만(Laurence Bodenmann)과의 3 가지 Q&A

- 제니스는 정밀 워치메이킹 및 천문대 시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회는 워치메이커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했나요?

*천문대 테스트는 워치메이커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이자, 무브먼트의 정확성과 기술적 수준을 파악하는 까다로운 테스트였습니다. 이같은 대회는 단순히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통해 탁월함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였으며, 시계 박람회와 더불어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행사로 손꼽혔습니다. 천문대 테스트에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기계적 정확성을 가장 우선시했던 시대에 워치메이커의 기술적 역량을 입증하는 명예로운 성취로 여겨졌습니다.*

*제니스 또한 정확도와 정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2,333 회의 수상 기록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설립자인 조르주 파브르-자코가 선택한 길이었으며, 스위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그가 선도했던 매뉴팩처 체계를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보다 완벽한 시계를 제작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니스는 오랫동안 대회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을 뿐 아니라 정확성의 대가로서 더욱 확고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 정밀 워치메이킹을 추구해 온 제니스의 오랜 역사에서 칼리버 135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칼리버 135는 제니스의 역사에서, 그리고 워치메이킹이라는 더욱 폭넓은 범위에서 진정으로 특별한 무브먼트입니다. 천문대 대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135-0) 이 칼리버는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뇌샤텔 천문대에서 5년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하면서 크로노미터 테스트의 황금기 동안 가장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차별화된 점은 바로 커다란 사이즈의 밸런스 휠이 탑재되어 관성을 높이고,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죠!*

- 1950년대라는 역사적 배경은 당시 제니스 크로노미터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950년대는 대담한 그래픽을 탐구하고 혁신을 도모했던 시기였습니다.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선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의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빈티지 크로노미터 135 또한 이같은 정신을 반영하여 비율과 정교한 하이엔드 마감 기법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디자인으로 우아한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목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약하며 여러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계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제니스는 이 아이디어를 한층 발전시켜 새로운 세대에 맞춰 '영원한 디자인'을 더욱 세련되고 모던하게 재해석한 시계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 **제니스, 워치메이킹의 중심**

1865년 스위스 르 로클에서 설립된 제니스는 끊임없이 개척 정신과 정밀성을 추구하며 1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선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 및 제조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 지속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969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성과 뛰어난 고진동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니스의 타임피스들은 혁신과 뛰어난 장인정신을 향한 매뉴팩처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념합니다. CHRONOMASTER 컬렉션은 고정밀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제니스의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강조하고, DEFY 컬렉션은 기술적 혁신과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PILOT 컬렉션은 모험에 함께하는 특별한 시계로서 제니스가 항공 분야에서 쌓아 온 풍부한 유산을 예찬합니다. 정밀성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은 크로노미터 부문에서 기록한 2,333회의 독보적인 수상 경력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오래도록 이어진 제니스의 탁월한 유산을 한층 강조합니다. 수상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칼리버 135는 최신 기술 솔루션과 소재를 통합하여 현대적인 구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제니스는 새롭게 선보이는 G.F.J 컬렉션을 통해 칼리버 135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국해협을 횡단한 루이 블레리오의 역사적인 비행에서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의 기록적인 성층권 자유낙하에 이르기까지, 제니스 시계는 역사를 통틀어 커다란 꿈을 꾸며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개척자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이처럼 대담한 정신은 제니스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활약하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제니스는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보여 온 탁월함, 혁신,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기념함과 동시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분야의 최전선에 서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고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1865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르 로클에서 전 세계까지, 제니스는 워치메이킹의 중심에 있습니다.





**G.F.J.**

레퍼런스: 40.1865.0135/51.C200

**핵심 사항:** 전설적인 칼리버 135의 부활. 크로노미터 인증. 브레게 헤어스프링.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제니스 설립 160주년을 기념하는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플래티넘 케이스,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 특별한 “브릭” 기요세 마감 기법을 적용한 무브먼트.

**무브먼트:** 칼리버 135 수동

**진동수:** 시간당 18,000회(2.5 Hz)

**파워 리저브:** 72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6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마감:** 특별한 160주년 브릭 기요세

**가격:** 48,900 스위스 프랑 / 52,900 유로 / 49,900 달러

**소재:** 플래티넘 950

**방수:** 5ATM

**케이스:** 39.15mm / **두께:** 10.5mm / **러그 간 길이:** 45.75mm

**다이얼:** 블루 브릭 기요세 기법이 적용된 외부 링, 중앙의 라피스 라줄리 디테일, 마더 오브 펄 스몰 세컨드 카운터

**아워 마커:** 18캐럿 화이트 골드 애플리케 인덱스

**핸즈:** 각면 처리된 18캐럿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 버클:** 스트랩 3개 포함: 플래티넘 핀 버클이 달린 다크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 블랙 카프스킨 가죽 및 블루 “사피아노” 카프스킨 가죽. **구매 시 선택 사항:** 더블 폴딩 클래스프가 달린 플래티넘 브레이슬릿

